

베어벡 “시리아전 해외파 출동”

아시안컵 본선 진출 확정 짓기 전략 이란전은 아시안게임대표 위주 기용

베어벡호가 내달 11일 예정된 시리아와 2007 아시안컵 예선 5차전 홈 경기를 맞아 해외파 태극전사들에게 재출격 명령을 내린다. 대한축구협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19일 “팀 베어벡 축구 대표팀 감독이 다음달 11일 예정된 시리아와 아시안컵 예선전을 앞두고 해외파 선수들을 모두 불러 모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시리아전에서 확실하게 본선 진출을 확정한다는 것이 베어벡 감독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베어벡 감독은 시리아전에서 본선 진출이 결정되면 아시안컵 예선 마지막 경기인 이란 원정(11월15일)에는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수들을 위주로 데리고 가서 평가전 형식으로 치르겠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은 아시안컵 예선에서 3승1무(승점 10)로 B조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란(2승2무·승점8), 시리아(1승1무2패·승점 4), 대만(4패)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이 다음달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예정된 시리아와 예선 5차전에서 승리하면 이란과 11월 15일 치르게 될 예선 마지막 경기에 상관없이 조 2위를 확보하게 돼 본선 진출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베어벡 감독은 시리아와 홈 경기에 해외파 선수들을 모두 소집, 최종예선 대표팀을 재구성해 반드시 본선 진출을 결정짓겠다는 각오다.

특히 10월 7~11일은 국제축구연맹이 정

한 ‘A매치 주간’으로 유로2008 예선이 이 기간에 함께 열리게 돼 해외파 선수들을 경기 시작 5일 전부터 소집할 수 있다.

베어벡 감독은 23일 입국해 K-리그 경기를 1경기 관람한 뒤 이튿날 러시아행 비행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제니트-루치전을 본 뒤 디 아드보카트 감독을 만나 이호 및 김동진의 대표팀 차출에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미 베어벡 감독은 내달 5일에 대표팀을 소집하겠다는 뜻을 밝혀 가나(10월8일)와 평가전에서 국내파와 해외파 선수들의 마지막 호흡을 맞춘 뒤 시리아전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시리아전을 기점으로 ‘아시안 게임 체제’로 대표팀을 바꾼 뒤 이란과 아시안컵 예선 마지막 경기는 2006 도하아시안 게임에 데려갈 선수들을 위주로 팀을 꾸려 참가해 일찌감치 중동 적응훈련에 나서겠다는 게 대표팀 코칭스태프의 청사진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8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후이막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월드컵태권도단체선수권대회 헤비급 결승전에 출전한 남윤배(오른쪽)가 이란 선수를 공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축구단 운영 최대 걸림돌은 재정 압박”

K-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프로축구단 대부분이 구단 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재정 압박을 꼽았다.

한국축구연구소(이사장 허승표)는 19일 “단장 및 사장, 사무국장, 코칭스태프 등 K-리그 구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구단 운영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적자 누적으로 인한 재정 압박’(15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팀 성적에 따른 부담, 축구협회와 프로 연맹의 갈등, 연고지 자치단체와 갈등이 뒤를 이었다.

14개 구단 가운데 10개 구단, 총 29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 K-리그 구단

K리그 14개구단 대상 한국축구연구 설문 조사

들은 1년에 100억 원 미만에서 최고 180억~200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으며, 적자 폭이 30억 원 미만인 구단이 있는가 하면 110억~120억 원에 달하는 구단도 있었다.

연간 예산 중 코칭스태프 및 선수 연봉, 각종 수당, 스카우트 비용 등 인건비가 80%에 육박했으며 인건비 지출이 과하다는 의견(25명)이 대부분이었다.

선수 연봉에 대해서는 25명이 많은 편

이라고 답했고, 샐러리캡(팀 연봉총액 상한제) 도입에 대해 ‘찬성’(18명)과 ‘원칙에는 찬성하나 시기 조절 필요’(9명)라는 응답이 ‘반대’(2명)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

신인 선수 선발 방식에서는 자유선발(15명)이 현행 드래프트(10명)보다 앞섰다. 리그 시스템은 전·후기 단일리그(21명)를 선호했으며, 컵 대회는 폐지(21명)를 원했다.

설문에 응한 구단 관계자 모두 한국 프로축구의 현 상황에 대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퍼거슨 감독 “박지성 복귀 예상보다 빠를수 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알렉스 퍼거슨(65) 감독이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한 박지성(25)의 조기 복귀 가능성을 점쳤다.

19일(이하 한국시간) 맨유 홈페이지에 따르면 퍼거슨 감독은 ‘맨유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는 라이언 깁스(33)의 빈 자리를 고려했지만 박지성의 공백도 큰 손실이라며 “박지성이 지난 주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은 만큼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퍼거슨 감독은 이어 “우리 구단은 보통 부상자에 관해 매우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박지성은 3개월 진단을 받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이드 라인일 뿐이다. 진단대로라면 박지성이 3개월 뒤에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인데 만일 재활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그 시간 안에 실전에 투입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지성이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3개월 안에 그가 돌아올 수 있을 걸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전국 씨름왕 전남 선발대회 20일부터 완도 문화체육센터

‘2006 대통령배 전국씨름왕 전남도 선발대회’가 20일부터 사흘간 완도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다.

국민생활체육 전남도씨름연합회(회장 유재선)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남성 6개부(초등·중등·고등·대학·청년·장년)와 여성 3개부(학생, 60kg이하, 80kg이하)로 나눠 치러지며 전남 22개 시·군에서 5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각 부문별 1~4위 입상자에게는 전국씨름왕 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신선스포츠

20일(수)
 ▲메이저리그<시카고C-필라델피아>(07:55·Xports), <클리블랜드-오를랜드>(10:55·Xports)
 ▲주계 여자축구연맹전(12:00·KBS SKY Sports)

▲신세계배 KPGA 선수권대회 1R(14:00·MBC ESPN)
 ▲금산 장사씨름대회(14:10·KBS1)
 ▲KOVO컵 양산 프로배구대회(GS칼텍스-흥국생명)(14:00·KBS SKY Sports), <대한항공-삼성화재>(16:00·KBS SKY Sports)
 ▲프로야구<한화-삼성>(14:00·KBC), <두산-롯데>(18:30·MBC ESPN), <두산-롯데>(18:00·KBS SKY Sports)

▲AFC 챔피언스리그 축구<전북-상하이>(18:50·SBS 스포츠), <19:00·Xports> 21일(목)
 ▲AFC 챔피언스리그 축구<알 사바브-울산 현대>(02:00·Xports)
 ▲AFC 챔피언스리그<알사랍-울산>(02:05·SBS스포츠)
 ▲메이저리그<샌프란시스코-콜로라도>(03:55·Xports)

중심력

방신티 증상이 살아났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남성 의료가가 3분이면 수술이나 약없이 후복!

080-333-3202

방수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직접 증사하세요!

누구나 직비용으로 100% 완벽한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드림특수방수제는?

방수, 방수, 방수

080-362-7788